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0



Contents

※ 2026.03.05.(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2.26.~2026.03.0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산업부, 1%대 저금리 800억 융자로 탄소중립 전환 지원 (2026.03.03)1
- 원주 캠프롱 시민공원, LNG 도입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공원 조성 (2026.03.04)1
- 김미희 유성구의원, '탄소중립 방재마을 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2026.03.03) 2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기업 모집 (2026.03.03) 2
- 김천시, 프로축구 홈개막전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2026.03.03) 2
-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2기,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6.03.01) 3
- 충남, 보령에 14번째 수소충전소 개소로 탄소중립 선도 (2026.02.26) 3

■ AI 분야 4

- 한-싱가포르, AI·원전·방산 협력 강화...아세안 진출 교두보 확보 (2026.03.03)4
- 한-필리핀, AI·방산 등 MOU 9건 체결로 전략 협력 강화 (2026.03.03)4
- 산업부, 산업단지 거점 'M.AX(제조업 AI 전환)' 지역 확산 본격 가동 (2026.02.26)4
- 강훈식 비서실장, UAE와 AI·원전 등 300억 달러 협력 MOU 성사 (2026.02.26)5
- 검찰·경찰, AI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선거 전담 수사반 가동 (2026.02.26)5

- 광주 남구, AI·모빌리티 전담 '미래산업전략과' 신설 (2026.03.03) 6
- 구미시, 5년간 방산 AI 인재 700명 양성...국비 71억 확보 (2026.03.03) 6
- 부산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AI 기반 행정지원 강화 (2026.03.04) 7
- 수원특례시, 2026년도 제1회 AI혁신거버넌스 위원회 개최 (2026.02.27) 7
- 은평구, 24시간 부동산 민원 AI 상담 서비스 3월 개시 (2026.02.27) 7
-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프로젝트, 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 협약 (2026.02.27) 8
- 광주·전남 통합으로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 개최 (2026.03.02) 8
- 서울시, 온라인쇼핑 AI 추천·챗봇 상담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6.02.27)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현대백화점, 자체 친환경 활동 정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포함 (2026.02.28) 10
- 현대제철, 탄소저감강판 본격 양산으로 탄소중립소재 공급 확대 (2026.02.26) 11

▪ AI 분야 11

- KB국민은행 직원 1.2만 명대로 감소, AI 전환에 인력 감축 가속 (2026.03.02) 11
- 메디큐스타, GPU 없는 '초경량 온디바이스 AI' 결핵 진단 장비 개발 (2026.03.04) ... 12
- 국립창원대, AI 실무형 인재 양성·로봇 특성화 사업 동시 선정 (2026.03.04) 12
- 백석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생성형 AI 부트캠프 성료 (2026.02.26) 13
- 그록, 이란 공습 날짜 정확히 예측...주요 AI 모델 중 유일 (2026.03.03) 1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산업부, 1%대 저금리 800억 용자로 탄소중립 전환 지원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및 '생태산업개발사업'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5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개최 예정. -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기·대규모 시설과 R&D 프로젝트에 올해 최대 8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며, 생태산업개발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폐열 회수 시스템·저탄소 설비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최대 10억 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 -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사업,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 지원제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하며, 용자지원은 4월 10일까지, 인프라지원은 3월 31일까지 모집 진행.
<p>지자체</p>	<p>☐ 원주 캠프롱 시민공원, LNG 도입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공원 조성 (2026.03.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원주시가 조성 중인 캠프롱 시민공원의 에너지원을 기존 LPG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LNG(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기조에 부응하는 친환경 공원 조성 추진. - LNG는 LPG 대비 열량 단가가 약 48% 저렴해 연간 4억 원가량의 운영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지하 매설 방식 도입으로 폭발 위험 등 안전사고 요인 감소 및 국립강원전문과학관·수영장 일대 안전성 강화 계획. - 시는 참빛원주도시가스(주)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초 배관 인입 공사를 시작해 3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활용한 관계 기관 협의 조기 마무리로 중복 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김미희 유성구의원, '탄소중립 방재마을 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미희 대전 유성구의원이 유성문화원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재마을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과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방재의 중요성 논의. -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마을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 이어갈 것을 표명.
	<p>□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기업 모집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기업 모집 개시.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지원(20개사)과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5개사, 기업당 최대 400만 원)로 구성.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제출이 필수이며,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망 탄소 관리 강화로 탄소 데이터가 거래 및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로 부상. - 도는 전문기관의 기업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내 수출기업의 통상 규제 대응 역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지원 추진 방침.
	<p>□ 김천시, 프로축구 홈개막전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천시가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김천상무FC 홈개막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도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과 직원들이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품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미사용 가전 플러그 뽑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용 등 생활 속 실천 수칙을 중점 홍보. - 경기 관람 전후 및 휴식시간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홍보를 진행하며, 향후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탄소중립 홍보를 지속 추진해 시민 참여형 기후 행정 확대 계획.
	<p>□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2기,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6.03.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의정부 신한대학교와 수원 경기도서관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2기'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도민추진단 2기는 330명으로 구성되며 북부권 30명, 남부권 70명 참석. - 포천시·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지역 탄소중립 정책과 도민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활용법과 '경기 기후보험'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실습 교육 실시. - 도민추진단은 제4차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 점검에 참여 예정이며, 4월부터 보건소·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방문해 탄소중립 교육과 기후보험 신청 지원 활동 추진 계획.
	<p>□ 충남, 보령에 14번째 수소충전소 개소로 탄소중립 선도 (2026.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보령시 대천동 공영 버스차고지에 14번째 수소충전소를 개소하며, 하루 최대 1,000kg 충전 가능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총사업비 67억 원 투입으로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성. - 보령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동으로 공영 버스차고지 내 유희부지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충전소 운영·관리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 체제로 담당. - 충남도는 2030년까지 도내 전역에서 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올해 보령시·계룡시·부여군·천안시 등 4개 시군에 5곳의 충전소 추가 준공 예정.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한-싱가포르, AI·원전·방산 협력 강화...아세안 진출 교두보 확보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이 로런스 워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I, 원전, 방산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실생활 적용 공동 연구·투자 확대 예정. - 이 대통령은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 조성을 발표했으며, KAIST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 체결. - 한수원은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최초로 SMR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도 체결.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등을 반영한 양국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p>☐ 한-필리핀, AI·방산 등 MOU 9건 체결로 전략 협력 강화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인프라·방산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협력 확대에 합의. 양국은 '디지털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AI 연구개발과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첨단 산업 협업 확대 및 공동협의회 설립 추진. - 조선·원전·핵심광물·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으며,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와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원전 협력 구체화. -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FTA 기반 교역·투자 확대와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을 통한 방산기업의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 참여 지원을 강조하며,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고화 의지 표명.
	<p>☐ 산업부, 산업단지 거점 'M.AX(제조업 AI 전환)' 지역 확산 본격 가동 (2026.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AX분과' 출범식을 열고 제조업 AI 전환 전략인 'M.AX'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 전략 발표. 전국 1,341개 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업단지를 M.AX 지역 확산의 최적 공간으로 보고 산업단지 단위로 AX 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 '산업단지AX분과'가 출범했으며, 전국 10개 산업단지를 AI 실증 거점으로 지정해 선도 공장 구축과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추진. '다크팩토리' 구축 지원과 5G 특화망 시범 구축도 계획. - 중앙 정부 일괄 추진이 아닌 지역 산업 생태계가 주도해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핵심이며, 10개 지역별 'MINI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추진.
	<p>□ 강훈식 비서실장, UAE와 AI·원전 등 300억 달러 협력 MOU 성사 (2026.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해 AI와 원전 등 분야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 협력 MOU를 성사시키고,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 3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50억 달러(92조 원) 이상의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 -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3~4월 재방한 예정. - 원전·AI·첨단기술·문화 협력 사업에 대해 향후 정상회담 계기까지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도 착실히 진행 중.
	<p>□ 검찰·경찰, AI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선거 전담 수사반 가동 (2026.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방침 발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 발전과 온라인 중심 선거 운동 현실을 고려해 가짜뉴스 악용 선거범죄 급증을 우려. -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 중이며, 해외 서버 이용 범죄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 경찰청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편성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경찰은 총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99건을 수사 중이며, 유해 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단속 진행 중.
지자체	<p>□ 광주 남구, AI·모빌리티 전담 '미래산업전략과' 신설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남구가 국정과제 전략적 대응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미래 모빌리티·데이터 등 미래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미래산업전략과' 신설. 미래전략팀과 AI데이터팀으로 구성. - 미래산업전략과는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AI·미래차 부품산업 등 신산업 육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업무 등을 담당. - 공무원 정원도 918명에서 928명으로 10명 증원되며, 연간 인건비 7억 1,324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조달. 경제재정국 직제순도 미래산업전략과를 포함해 조정. <p>□ 구미시, 5년간 방산 AI 인재 700명 양성...국비 71억 확보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구미시가 교육부 주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에서 국립금오공대가 방산AI 분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71억 2,500만 원 확보. 총사업비 73억 7,500만 원 규모로 5년간 추진. -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20여 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며, 전자공학과를 주관학과로 컴퓨터공학부·기계공학부가 가세.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간 700여 명의 실무 인재 배출 계획. -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병행하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방산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청년들의 지역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부산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AI 기반 행정지원 강화 (2026.03.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학습·심리·정서·건강·복지·진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본격 운영 개시. - AI 비서, 부산교육클센터 상담 챗봇 '알리도', 표준서식 등을 제공해 행정업무 부담 경감 추진. AI 비서는 정책 해석, 업무 절차, 사례 적용 등 실무 중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통합 진단과 연계 지원 전담. 지자체·복지관·병원·경찰 등 외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계획.
	<p>□ 수원특례시, 2026년도 제1회 AI혁신거버넌스 위원회 개최 (2026.0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2026년도 제1회 수원시 AI혁신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AI 정책 실행계획의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 점검. - 위원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지역 산업 발전, 시민 일상 편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신규 위원 2명 위촉장 수여와 전문가 자문 및 토론 진행. - 수원시는 시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과 행정 혁신을 통한 시민 편의 지속 제고 방침.
	<p>□ 은평구, 24시간 부동산 민원 AI 상담 서비스 3월 개시 (2026.0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은평구가 AI 기반 '부동산 민원 AI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고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AI 챗봇 상담을 제공하며, 근무시간에는 담당 공무원 1대1 채팅 상담 병행. - 상담 분야는 부동산중개업 신고, 토지거래허가,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핵심 정보 안내 등 6개 분야로 구성. 법령 개정 사항과 주요 정책 정보도 안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은평구청 직원들이 직접 기획·구축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 캐릭터 '부특이'도 제작해 주민 접근성 제고.
	<p>□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프로젝트, 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 협약 (2026.0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 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5조 8천억 원), 로봇 제조공장(4천억 원), 200MW급 수전해 플랜트 및 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2조 3천억 원), 수소AI 시범도시(4천억 원)를 조성하는 '미래산업 패키지' 사업 추진. - 정부 5개 부처,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그룹이 7자 공동 MOU를 체결했으며, 재생에너지로 AI 데이터센터를 탄소중립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린수소를 지역 모빌리티에 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순환 모델 구현 구상. - 약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 1천 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전망하며, 로봇 제조공장은 물류·배송용 로봇 연간 최대 3만 대 양산 목표로 데이터센터와 연동한 피지컬AI 학습·검증 인프라로 확장 계획.
	<p>□ 광주·전남 통합으로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 개최 (2026.0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이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를 개최. 통합특별법에 AI집적단지 지정,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 조항 포함. - 통합특별시는 AI·에너지·반도체를 3대 축으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 구축을 추진하며, 광주권 AI 인프라·인재 역량과 전남 서부권 전력·용수 자원, 동부권 산업 기반을 연계한 초광역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전략 제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에 AI집적단지 지정과 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되어 국가 AI산업 전략 거점 도약을 위한 제도적 토대 확보. AI 인프라 확충에서 시민 체감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구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서울시, 온라인쇼핑 AI 추천·챗봇 상담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3.0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온라인쇼핑 이용 소비자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응답자 30.2%가 피해 경험이 있으며, 피해 발생 시 AI 챗봇의 획일적 답변에 39.4%가 불만을 표출. 40.4%는 챗봇과 온라인 1:1 상담 동시 운영 필요성 제기. - AI 상품 추천에 대해 평소 몰랐던 상품 발견(39.5%) 등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 상품 구매 유도(31.2%), 광고와 AI 추천 상품 구분 어려움(24.0%) 등 단점도 지적.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 28.1%, 유출 가능성 불안 78%. - 인플루언서 상품 광고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 우려 40.9%이며,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도 환불·배상 책임 부과(61.6%)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시는 소비자 기만 사업자 부당 행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지속 방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S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백화점, 자체 친환경 활동 정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포함 (2026.0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백화점의 자체 고객 참여형 친환경 활동 5개 항목이 3월부터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 실천 활동으로 포함. '내 나무 갖기' 기부 프로젝트, 개인 다회용기 지참, 폐휴대폰 제출, 카페터 텀블러 이용, 식품관 개인 장바구니 사용 등이 해당.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소비자의 탄소중립 활동에 대해 정부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7만 원 수령 가능.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고객들이 누적 약 9억 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수령. - 현대백화점은 2021년부터 고객 친환경 활동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5개 활동 추가로 연간 5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정부 탄소중립포인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현대제철, 탄소저감강판 본격 양산으로 탄소중립소재 공급 확대 (2026.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제철이 전기로와 고로의 쇳물을 배합하는 복합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가동해, 기존 고로 생산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 20% 감축한 탄소저감강판의 본격 양산을 2월부터 개시. - 2023년 4월부터 당진제철소 전기로를 활용한 생산성 시험과 고객사 평가·강종 승인 절차를 병행해 체계적 양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현재 25종의 강종 인증을 완료하고 올해 28종을 추가해 총 53종까지 확대 계획. -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부터 탄소저감 철강재를 국내 및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이며,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에 자동차강판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공급하고 적용 강종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KB국민은행 직원 1.2만 명대로 감소, AI 전환에 인력 감축 가속 (2026.0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말 임직원 수가 1만 2,925명으로 전년 대비 579명(-4.28%) 감소하며 처음으로 1만 2,000명대 진입. 2007년 1만 8,235명 대비 18년 만에 29.1% 급감. 영업점도 987개에서 620개로 축소. - 인터넷·모바일뱅킹 보급 확산과 지점 방문 고객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AI 전환(AI) 본격화로 필요 인원이 갈수록 감소 추세. KB금융그룹은 AI를 피할 수 없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기업</p>	<p>흐름으로 보고 선도를 위해 사활을 건다는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는 AX가 영업 현장에 더 많이 적용될수록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며, 유희 인력의 고객 상담 강화·고도화 활용 등은 금융그룹별 전략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p>□ 메디큐스타, GPU 없는 '초경량 온디바이스 AI' 결핵 진단 장비 개발 (2026.03.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헬스케어 기업 메디큐스타가 GPU 없이 저사양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결핵 진단 장비 '마이코스캔(MycoScan)' 개발. 하드웨어 구축 비용 절감과 전력·인터넷 환경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운용 가능. - 기존 액체배양 검사법 대비 검사 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AI가 촬영 영상을 분석해 결과 리포트를 생성하는 구조. 의료 데이터는 기기 내에서 처리해 외부 전송 최소화. - 메디큐스타는 2025년 10월 베이징 'GenAI Competition 2025' AI 모델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마이코스캔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의료기관 협력 임상 확대 추진 중.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p>	<p>□ 국립창원대, AI 실무형 인재 양성·로봇 특성화 사업 동시 선정 (2026.03.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AI 분야)'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 비수도권 대표 교육거점 마련과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기대. - AI 부트캠프는 2030년까지 국·도비 등 100억 원 지원으로 아마존웹서비스, KT 등 국내외 거대 IT 기업과 협력하여 직무 분석, 교과목 개발, 현장실습 등 공동 운영. 로봇 특성화는 150억 원 투입으로 11개 기업과 협업. - 로봇 특성화 사업은 전국 25개 대학 중 8.3대 1 경쟁률을 뚫고 비수도권 대학 유일 선정.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제조 분야 맞춤형 교육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백석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생성형 AI 부트캠프 성료 (2026.0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자 부트캠프'를 3개월간(349시간) 운영 후 수료.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진행. - 참여자들은 자연어 처리(NLP) 기반 파일 분석·자동 분류 서비스와 GPT 기반 시각장애인 음성 정보 도우미 플랫폼 등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 문제 정의부터 서비스 배포까지 전 과정을 팀 단위로 경험. - 최종 발표회에서 참여 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가 기술 완성도와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 평가했으며, 기업과 훈련생 간 현장 면접 진행을 통해 실질적 일자리 매칭으로 연결.
해외	<p>□ 그록, 이란 공습 날짜 정확히 예측...주요 AI 모델 중 유일 (2026.0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루살렘포스트가 주요 4개 AI 플랫폼을 대상으로 미·이란 충돌 시나리오를 제시한 실험에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만이 2월 28일 공습 날짜를 정확히 지목. 클로드는 3월 7~8일, 제미니는 3월 4~6일, 챗GPT는 3월 1일·3일을 제시. - 그록은 제네바 회담 결과를 주요 변수로 꼽으며 두 차례 일관되게 2월 28일을 제시했으며, 실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28일 새벽 이란을 공습하여 결과적으로 날짜 일치. - 전문가들은 AI의 '예지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으며, 고조된 군사적 긴장과 외교 일정, 언론 보도 흐름 등을 종합한 확률적 예측으로 좁혀진 선택지 중 하나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사례에 가깝다는 평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